

명랑대첩축제, ‘역사·문화의 장’ 가능성 마련

20일 폐막...15만 관광객 발길 잡아 미디어 해전·조선수군 체험 등 눈길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 성장 최선”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일 폐막한 2024 명랑대첩축제가 15만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세계적 역사·문화의 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다.

2024 명랑대첩축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도 녹진관광지와 해남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는 ICT 융복합 미디어 해전과 회오리 불꽃쇼,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해군과 해경의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조선수군 병영체험, 케이팝 커버댄스, 창현 거리노래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공연이 관광객의 흥을 돋웠다.

특히 최신 ICT 기술을 통해 울돌목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융복합 미디어 해전은 관객들에게 명랑대첩 승리의 감동을 전

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불꽃쇼와 국가스텐의 화려한 공연은 성대한 축제의 장점으로 과시했다.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해군·해경의 울돌목 해상퍼레이드,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공연, 해군 홍보체험관은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신뢰와 함께 색다른 추억을 제공했다.

축제장에서 개최한 조선수군 무예대전, 명랑 치어리딩 경연대회,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경연대회는 축제장의 열기를 북돋웠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선수군 병영체험, 명랑해전 AR&VR 체험 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은 명랑대첩 승리의 의미를 재강조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또 우천과 추위에 대비해 비옷과 바닥 매트, 무료담요를 배부하는 등 관광객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천과 강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실시되는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 진도대교와 해변데크에 안전요원을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썼다.



‘2024 명랑대첩축제’ 개막 행사가 지난 18일 진도 녹진관광지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기상 상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해 그 의미가 더 깊었다”며 “전남도가 2024

~2026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선포한 만큼 지역 주민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무안군, ‘한방아 놀자’ 한방교실 만 5세이상 대상

무안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약의 소재로 한 ‘2024 한방아 놀자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방아 놀자 교실은 미취학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한약재 질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의약에 대한 친근감 형성, 미술활동을 통해 한의약 관련 건강 지식 향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성장기 아동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전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한의사와 함께 한약재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한약재 체험하기, 한약재를 활용한 미술활동 등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인기에 힘입어 교육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무안군, 내달 27일까지 운영

무안군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2회 남양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 및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인지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검사 I·II를 실시하고 치매의심이 진단되는 경우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치매환자로 진단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생용품 지원, 쉼터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그린시티 국무총리상 수상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신안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해로 20주년을 맞은 그린시티 시상은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전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환경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 천안시(충남)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전남)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대구), 고양시(경기), 예천군(경북), 김해시(경남) 등 4곳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세계자연유산인 광활한 갯벌 보존, 1도 1정원화 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신안군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가을 섬 여행 프로그램 마련

해양치유·맨발걷기 체험 등

완도군은 20일 ‘2024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프로그램을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화 전시회와 해양치유·맨발걷기 체험, 청산도 은하수투어,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5일부터 11월7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국화전시회에는 3만 본의 국화가 선보인다.

해양치유 체험은 모래테라피, 머드랩핑, 해변요가·명상·노르딕 워킹 등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는 25~26일 ‘어썸 블루 치유 콘서트’가 열린다.

야간에는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해양치유 야시장’을 열어 완도 특산물과 요리,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완도군 해양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주

최하는 ‘맨발걷기 페스티벌’은 26일 황토길과 해변 모랫길을 여유롭게 걸으며 가을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청산도 은하수 투어’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의 밤하늘을 사진 촬영하며 추억까지 담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인생샷’ 오픈 토크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에서는 각 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스탬프 투어’로 구성해 인증 시 완도의 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서는 26일 치유 체험과 함께 ‘치유 숲강스 버스킹’이 열린다.

완도읍에서는 부꾸지에서 출발해 해안 숲길을 따라 구계등까지 돌아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남파랑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 완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정취와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고품질 키위를 생산하기 위해 삼색키위연구회 회원들에게 전지·전정 등 핵심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삼색키위연구회 대상 현장 교육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득)가 키위 농가를 육성해 고품질의 키위를 생산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삼색키위연구회를 대상으로 지난 8월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20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키위 전문상담가인 박동만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키위나무의 특성과 재

배 적지, 키위 대목 종류별 특성과 접목, 결실, 겨울 전지·전정 등 핵심기술을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김상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키위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단계별 교육을 추진해 고품질의 키위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해남군,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기간 운영

해남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구제역은 굽이 돌로 갈라진 우체류 가축에 발생하며 가축 폐사 등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 전염병인만큼 적극적인 방역사항 준수와 백신접종 등이 필요하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군·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했다.

관내 철새도래지 3개 구간, 5개 지점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60여개의 장소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및 군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게 된다.

해남군은 거점소독시설(해남읍 용머리길 14-37)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중오리 농장 및 철새도래지 등에 통제조소도 6개소를 설치·운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질병 정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